

사설

종교갈등도 풀리는데...

종교간 화합의 물결이 일고 있다. 교황이 앉아서 가톨릭교와 개신교, 이슬람교 사이의 오랜 반목과 갈등을 청산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선언하는 모습은 정말 모든 인류와 모든 생명의 행복을 위한 종교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모든 이들이 함께 경배해 가지 않을 일이며, 우리 불교계도 이러한 화해의 모습에 진정에서 나오는 축복을 보내 마땅하다.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불행한 사태가 인류 역사에 기록되었던가를 돌이켜 보면, 개신교와 가톨릭간의 갈등, 기독교와 이슬람 교와의 갈등, 유대교와 이슬람교와의 갈등으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인명이 살상 당했는지 또 지금도 종교간 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 새로운 화해의 물결은 앞으로 종교 사이의 화합과 공존의 길을 여는 새로운 복음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큰 흐름에 한편으로 경하해 가지 않으면서도, 불교의 입장에서 진한 아쉬움과 반성이 없을 수 없다. 우선 아쉬움이라는 것은 이러한 종교간 화해의 흐름은 당연히 불교에서 나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종교 사이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종교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비극을 야기했던 것은 주로 지금 화해의 물결을 보이는 가톨릭, 개신교, 이슬람교이다. 불교 전파의 역사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다. 오히려 불교에는 "자기 종교를 신앙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곧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른 종교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던 아쇼카왕의 비문을 자랑스런 전통으로 간직하고 있다. 가까이로는 부처님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귀일함을 밝혀 불교

내 종파 사이의 갈등을 철학적으로 해소했던 원효 스님의 위대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런 자랑스런 전통에 걸맞게 불교가 앉아서 모든 종교의 화해와 공존을 선언하는 큰 물결을 일으켜야 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우리 한국에서라도 모든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이끌어 종교 화해의 큰 선언을 이끌어내는 선도적 역할을 했어야 하고, 지금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계가 화합의 종교라는 전통에 무색하게 너무도 반목과 갈등에 멍들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반성이다. 대처와 비구의 갈등은 수십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도 불교계 내 각 종파들이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한문 문제가 되고 있는 조계종 내 총무원 측과 정화회의의 갈등도 그 갈등의 근본요소에 비하여 너무나 큰 파장을 보이며 불교계를 망치고 있다. 하루 빨리 불교계 내의 갈등을 해소하고 세계 종교의 화합과 공존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불교의 장점을 결국 남의 종교에서 배우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불교에는 다른 종교가 갖지 못한, 종교 간 화합의 바탕이 될 고유한 교설이 있다. 불교의 방편설은 모든 방편은 여건만 맞으면 목적을 위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어떤 방편이든 100인 것도 0인 것도 없다고 말한다. 부처님 가르침이 승승합은 말할 것이 없으나, 거기에다 집착하지 말 것을 가르치는 위대한 열린 정신이 있다. 이제라도 이 가르침의 정신에 근본하여 우리 교계의 화합을 이룩하고 그에 바탕하여 세계 종교의 화합을 앞장서는 진정한 불교의 모습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노-사 합심 불교TV 살리자”

‘내년 1월 정상방송’ 등 16개 협약안 합의

허문도씨 '대표이사 직대 정지가처분' 신청

노조의 파업과 직장폐쇄로 맞서던 불교TV 노·사가 단체협상을 통해 제2의 개국을 선언하고 위기에 빠진 회사를 회생시키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불교TV 이수덕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운상호 노조위원장은 4일 단체협상을 갖고 △2000년 1월부터 정상 제작 방송 △노사협의체 구성 △밀린 상여금의 출자 전환 △무정의 회사 선언 △회사 정상화를 위한 16개 단체협약안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이날 단체협약안 서명식에서 “노조의 파업과 회사의 강경대처는 대의적으로 불교TV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불제작로서의 명분을 갖추지 못했다”고 사과하고, “노사가 관계 손을 잡고 제2의 개국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문도 전 사장은 같은

날 “10월27일 이사회에서 결정한 본인에 대한 해임안은 무효”라면서 “지난 1일 서울지법에 대표이사 직무대행 집행정지가 처분과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조와 불교TV노조는 “허문도 사장의 해임은 언론불사의 미래가 더 이상 표류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사회와 강인한 의지를 교계내외에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nia.com)



◇불교TV 이수덕(왼쪽)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운상호 노조위원장은 4일 단체협약안 서명식을 갖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기초선원 갈마회 제도화”

조계종, 정원제한-입방 절차 개선키로

정원제한과 입방등록 절차 개선 등으로 기초선원의 수행종도가 쇠신될 전망이다. 조계종 기초선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조영호)는 기초선원 입방 시기 조절 및 갈마를 통한 수행 면학 증진 조성에 주력키로 했다.

입방을 4일까지 접수했다. 또 1안거 입방생을 12명으로 제한하기로 한 지난해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을 엄수하고, 갈마회도 제도화함으로써 소수정에 남자를 엄선, 질적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대각회 사암연합회 결성

회장에 원성스님

재단법인 대각회(이사장 종교) 소속 30여 사찰 주지스님들이 10월 28일 서울강북구 본원정사에 모여 사암연합회를 결성하고, 회장에 원성스님(본원정사 주지, 운영위원장)을 선출했다.

법안 결성 및 사찰의 법인화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조계종-선학원 합동인준이 7월 종회에서 유보된 이후여서 주목된다. 현재 대각회는 정관예 조계종 종지 불대를 명시했으며, 이 사도 모두 조계종 승려다.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록' 발간

현대 조계종 역사의 역대 조계종 중앙종회 회의록이 책과 CD-롬으로 발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통)는 4일 첫 번째 권 '제1대 중앙종회 회의록'을 펴냈다.

회의록에는 당시 종회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종회의원 명단 및 변동 사항, 본회의 발안 내용, 상임분과위 구성, 총무원 간부 명단, 안건 처리 현황, 회의의 개와 일수 등 참석 현황 등을 실어 당시 조계종 역사를 재현했다.

법타·돈명스님등 징계 경감

조계종 특별심사위 1차 13명 재심사

조계종 징계특별위원회에 의한 특별심사위원회(위원장 원서호)는 10월 30일 1차 심사위원회를 열어 전 은해사주지 법타스님 등 13명을 재심사하고 징계를 결정했다.

특별심사위는 또 5일 회의를 열어 98년 11월21일 이후 징계자 전원을 재심사 대상으로 해 심사를 개시했다.

재심사 징계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순서는 접수 순, 괄호 안은 이전 징계 내용) △적문-공권정지 1년6월(공권정지 3년) △석담-공권정지 6월(공권정지 2년) △덕조-공권정지 3월(공권정지 1년) △진욱-면직(면직) △기연(전 제주 전

1면 '선학회'서 계속

“한국선의 현실과 21세기의 역할”, 한중광교수(동국대)가 ‘경허의 선사상과 한국선의 진로’, 이은문씨(중앙일보 종교전문위원)가 ‘한공의 선세계와 미래문명의 비전’ 등을 각각 발표한다.

원, 보조선사상연구소 등 선학 및 불교학 관련 단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새 천년과 맞물려 활발해지고 있는 한국선학계의 움직임에 대해 성본스님(동국대 선학과)은 “21세기 정신문화의 시대에 선이 가장 큰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선에 대한 확실한 이론적 이해없이 선을 생활화하고 세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리: 김민준

현대만평

박구원

이쪽 안전은 생각 않고...

※ 본 광고는 총무원장 선거법 제15조에 의한 제30대 총무원장 선거입후보자 총책광고입니다.

‘대화합의 원융종단’ 실현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30대 총무원장 — 왜 지선스님이어야 하는가?

변화된 종단의 환경은 새로운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종단 안팎의 환경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는 1600년 한국불교의 위상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변화된 환경은 새로운 구조와 참신한 인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도들이 소외됨이 없는 ‘원융종단’의 건설과 이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갈 지선스님! - 이 시대 한국불교의 희망입니다.

안정을 기원하는 종도들의 바람을 실현시킬 철학과 비전이 있습니다!
 모두들 종단이 안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안정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의 불씨를 잠재우고 종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책임자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원융종단에 대한 철학이 있고 준비된 비전이 있는 지선스님, 그가 바로 종단안정의 책임자입니다. 오랜 활동을 통해 지선스님이 체득한 조화의 능력과 역동적인 리더십은 종단안정에 대한 종도들의 열원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폭넓은 지지기반은 종단안정을 이룰 수 있는 최대의 힘입니다!
 종단의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대다수 중앙종회의원 스님들은 이미 지선스님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시대 요구하는 화합과 안정의 책임자는 지선스님이라는 것이 원로스님들과 대다수 중앙종회의원 및 종진 스님들의 판단입니다. 행정부인 총무원은 입법부인 중앙종회의 판공위원 지지기반이 없는 종단안정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문종과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넘어 종진스님들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형성된 지선스님의 지지기반은 종단안정의 든든한 뒷받침입니다.

총무행정능 책임질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원장은 시대적 흐름과 종단적 요구에 어긋남이 없는 행정능력을 갖춘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지선스님은 그동안 종단의 크고 작은 소임을 원만히 수행했으며, 사회조직의 책임자와 전문가들과 오랫동안 교류하며 합리적인 행정의 안목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많은 스님들과 공의를 거쳐 준비된 풍부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준비된 행정능력을 종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뿐입니다.

종단의 대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지도자들은 지선스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지난 세월 민주화운동과 다양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맺어진 인간적 우애도 있지만, 긴 세월 동안 지선스님이 보여준 수행자다운 기개와 통찰력에 대한 인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종단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총무원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종단과 종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국가도 선택시킬 수 있는 총무원장, 바로 지선스님입니다.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경험과 안목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민적으로 검증된 지선스님의 도덕성과 사회지도력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를 토대로 지선스님은 21세기 한국불교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사회의 정신문화에 이끌어갈 수 있는 건장한 한국불교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힘 있는 불교!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교! 지선스님과 여러분은 해낼 수 있습니다.

기호 1 지선

1946년 1월 전라남도 장성군 삼계면 삼도리에서 출생
 1961년 5월 백암사에서 석산스님을 은사로 득도
 운문선원에서 3년간 선안
 1964년 3월 백암사에서 동산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67년 3월 백암사에서 석암 대종사를 계사로 보살계 수지
 1970년 8월 백암사 운문선원 대교과 졸업 및 수괴과 수료
 1972년 3월 서울대종사를 박사학위 취득
 1978년 1월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총장
 4월 조계종 제4대 중앙종회의원
 10월 조계종 제33교구 본사 관음사 주지
 1978년 9월 조계종 비상종회의원
 1980년 4월 조계종 제4대 중앙종회의원
 1981년 11월 제3회 '세계승가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
 1986년 6월 정토구현전국승가회 의장
 1987년 5월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의장
 1992년 10월 살인불교전국승가회 의장
 1989년 인권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연합회의 공동의장
 1994년 3월 법승기 중단계학수진(법승중추) 상임지도위원
 5월 조계종 개혁회의 상임부위원장 겸 개혁회의 의원
 10월 조계종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암사 주지
 1998년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국군본사주지 모임 회장
 대한민국 제22군 추진위원회 상임위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